

Arts & Culture

고품격 문화예술 매거진 December 2011 | Vol.71

12



COVER STORY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MUSICAL 김향란의 브로드웨이 들여다보기

뮤지컬 연출가 겸 프로듀서 **해럴드 프린스** Harold Prince

INTERVIEW 오현금의 세계문화동행

체코대사 **야로슬라브 올사 주니어** Jaroslav Olsha Jr.



www.artsculture.com

Interview 오현금의 세계문화동행 '체코'



체코대사 **Jaroslav Olsha Jr.**

야로슬라브 올사 주니어



인터뷰 : 아로슬라브 올사 체코대사

오현금 : 서울에서 열리는 체코 문화 행사인 '서울, 프라하의 날'에 만나 뵙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올사 : 프라하는 유럽의 중심에 있으면서 다양한 문화가 교차하는 곳이며, 서울은 열정과 경쟁력을 지닌 활기찬 도시입니다. 먼 거리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연극, 영화, 음악, 무용, 전시 등 많은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오현금 :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곳이 바로 "체코 그래픽 아트전"이 열리는 전시장인데요. 판화 작품 전시회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판화, 예칭, 디지털 판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보입니다.

올사 : 네. 판화 전시가 맞습니다. 화가가 캔버스에 직접 작품을 그린 것이 아니라, 한정된 숫자로 복제 가능한 예술품의 전시입니다. 체코에서는 그래픽아트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보우드닉'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작가의 배경은 전혀 보지 않고 그 해에 만든 한 작품만을 제출하도록 하여 평가합니다. 예술가에게 일생에 단 한번 주는 영예로우며, 권위있는 상입니다. 이번 서울 전시를 통해 체코 그래픽의 새로운 예술적 표현과 형태를 제시한 신세대 예술가들의 독특하고 창의력 넘치는 재능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오현금 : 작품 그 자체로만 평가하고, 평생에 단 한번만 받을 수 있는 상이라니 더욱 흥미롭습니다. 이번에 기획한 20여 개의 행사 중에서 '블랙라이트 씨어터 퍼포먼스'를 빼 놓는 체코의 공연을 말할 수 없지요.

올사 : '블랙 씨어터'는 1960년대 체코 아티스트들에 의해 개발된 장르입니다. 암흑 바탕에 발광 조명을 활용한 독창적인 퍼포먼스로 현재까지 7,000여 회의 공연을 통해 전 세계 약 150만 명의 관객이 관람하였습니다. 모던 댄스와 마임의 결합이며 빛과 어둠을 예술의 세계에 끌어들이는 체코가 자랑하는 공연입니다. 직접 보지 않은 분에게는 설명하기가 참 힘들답니다.

오현금 : 저는 다행히 그 공연을 보았는데, 상상의 나라를 마음껏 펼치며 판타지의 세계에 푹 빠진 시간이었습니다. 뛰어난 안무와 마임하시는 분의 유머러스한 연기, 빛과 어둠의 조화는 우리를 금방 어린 시절로 데리고 가기도하고, 행복한 시절을 추억하도록 해 주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 꿈을 펼쳐게 해 주었습니다. 대사가 없는 연기였지만 전달하고 싶어하는 내용에 공감할 수 있었고, 눈앞에 펼쳐지는 매순간을 즐기며

황홀한 가상의 세상으로 들어가 진정한 어둠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체코를 가 보질 못했는데, 이번 공연을 보면서 어떤 환경에서 예술의 힘을 키운 분들이기에 이런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꼭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올사 : 그래요. 꼭 오셔야 합니다. 프라하는 '도시의 어머니'라고 부르지요. 볼타강이 흐르고 수세기에 걸쳐 건축가, 조각가, 음악가, 작가의 손길이 닿은 거리를 구경하려고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오는데, 모두 여름에만 온답니다. 저는 오히려 겨울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난 1월쯤에 눈이 오면 프라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영하 10도쯤 될 때 하얀 눈이 도시를 덮고, 저녁에 불빛이 있으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카프카 스타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카프카의 작품에 나오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해져 눈이 비가 되어 내리거나, 눈이 녹아 버리면 그 맛이 덜해지지요. 금방 내려 녹지 않고 하얗게 있는 상태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1월을 적극 추천합니다. 실외는 춥지만 실내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서울의 추위와 비슷하니 낮에는 로마네스크, 고딕, 로코코, 바로크의 양식으로 지어진 성당과 궁전, 박물관을 구경하고, 저녁에는 프라하 심포니, 체코 필하모니를 비롯하여 현대음악 연주회, 국립극장에서 발레나 오페라 연극 등 많은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프라하의 예술은 정말 수준 높습니다. 그리고 밤의 프라하를 꼭 즐기셔야 해요. 음식과 맥주, 불빛, 사람의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오현금 : 대사님의 얘기를 들으니, 예쁘고 아기자기한 거리를 거닐며, 카프카의 '변신'에서 돈 버는 기계처럼 살다 어느 날 벌레로 변해, 가족에게도 버림받는 주인공의 슬픔과, 스페타나, 모차르트, 드보르작 등 프라하를 무대로 활동했던 음악가들의 흔적을 느끼고 싶습니다. 다른 행사는 어떤 게 있나요?

올사 : 영화 상영도 있고, 체코의 수도로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한 도시 프라하의 파노라마를 목판화, 수채화, 모형, 사진으로 보여주는 전시가 있습니다. 또한 1994년 창단되어 동유럽뿐 아니라 세계 오케스트라 탐 클래스로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는 젊은 오케스트라 프라하 필하모니가 아시아 초연을 서울에서 하는데 드보르작의 작품을 연주하지요. 얼마 전 스페타노바 리토미슬 페스티벌에서 멋진 음악을 선사한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프라하 필하모니와 음반을 만들었어요. 록 오페라 뮤지컬 '햄릿'은 셰익스피어 원작을 체코의 아티스트 야넬 레데츠키가 새롭게 각색하여 한국 무대에 올린 것입니다. 호동왕자와 사비공주의 비극적 사랑을 다룬 한국 역사 뮤지컬 '바람이 나라'의 작곡도 체코의 작곡가 즈데네크 바르타이 했습니다.

오현금 : 한국과 체코의 문화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서로 융합하여 창조물을 만들어 내었군요. 12월은 기분이 들뜨는 달입니다. 오랜 역사와 현대가 교차하는 예술의 도시 프라하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올사 : 12월 1일부터 크리스마스 축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와 장식품들, 성 니콜라스가 아이들과 만나고, 즐거운 가족끼리의 축제입니다. 12월 24일 저녁에는 가족끼리 특별식사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생선요리를 먹지요. 식탁에 앉을 땐 홀수로 앉거나, 모든 사람이 식사를 마치기 전에 테이블에서 먼저 일어나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믿어요. 생선을 먹고 비늘을 자신이 먹던 접시에 붙여두거나, 지갑에 넣어두면 새해에 돈을 많이 번다고 하고, 어린이들이 물고기를 연못에 놓아줍니다. 요즘은 만든 가짜 잉어를 사용하지요. 행운을 가져오는 빨간 열매가 열리는 푸른 식물 미술도구를 다른 집을 방문할 때 갖고 갑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들은 신발을 어깨너머 던지며 언제 결혼하게 될지 점을 친답니다. 신발이 밖을 향하면 그해에 결혼을 하게 되고, 신발이 집 쪽으로 향하면 집에 머물게 된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날에는 트리 아래쪽에 선물을 쌓아두고 가족끼리 선물 교환을 합니다. 저의 아들이 4살인데 아직 산타할아버지를 믿고 있어서 좋아요. 체코에서는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친구들과 함께 1월1일을 보냅니다.

오현금 : 오랜 기독교 국가로 알고 있어서 종교적 행사만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우리의 점치는 풍습이나, 불교의 방생과 비슷한 것도 있어 더욱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얘기 나누며 가보고 싶은 나라의 맨 앞쪽에 체코를 두게 되었습니다. 체코에서 온 공연과 전시가 서울에서 많이 있지만 평소에 체코 문화를 가까이 접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올사 : 홍익대 근처에 체코정보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 교육, 비즈니스 등 체코와 가까워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와드립니다. 체코어 무료 강좌도 열리고, 영화 상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사관은 항상 열려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오현금 : 이렇게 멋지고 마음 따뜻한 대사님과 체코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 · 오현금
문학박사, 문화칼럼리스트
사진 · 안응철 사진가